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정현주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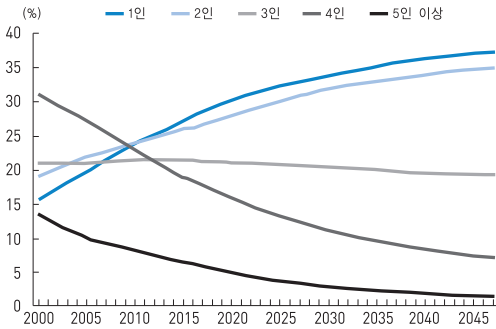
- 2010년 이후로 4인 가구 대신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급성장하고 있는 1인 가구는 2019년 현재 29.8%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 진입 초기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은 지속적인 사회정착 장애요소로 작동하여 결국 저출산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붕괴라는 사회적 위기를 재생산한다.
- 청년 1인 가구는 성별로 상이한 분포양상, 요구,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청년 남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여성은 서비스업으로 특화된 특정 지역(서울, 대전)에 집중 분포하고 남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중심지 모두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줄어 들었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표적인 점유형태로 자리 잡았다.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은 남성 대 여성이 15.3% 대 21.7%로 여성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녀 1인 가구와 고령(여성) 1인 가구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가구로 등장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간주하던 시절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1인, 2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인 가구는 2019년 현재 29.8%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이며 2047년에는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히 1인 가구 현상으로 불릴 만하다(그림 VIII-8).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노르웨이는 2017년에 이미 1인 가구 47.5% 시대에 진입했으며 남부를 제외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40% 내외의 1인 가구 비율을 보인다(EuroStat, 2020).

1인 가구의 급증 배경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비혼과 만혼에 따른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주목받아온 고령(여성) 1인 가구와는 달리 청년 1인 가구는 최근 현상이기도 하지만 임시적인 가구 형태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1인 가구 현상의 주요 동인이었지만 정책 및 사회 담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VIII-8]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2000-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9.

### 청년 1인 가구의 특징 및 취약성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결혼과 함께 독립하던 전통적인 다인 가족중심의 주거문화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하기 전 단계인 청년 세대에게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자가 마련 가능성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 진입이 크게 차별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이수옥, 2016; 박미선, 2017).

신자유주의 확장과 경제위기, 청년고용의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사회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비정규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직결되어 있

다. '88만원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자조적인 표현은 청년 세대가 당면한 고용불안정과 주거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청년기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하고 불안정성이 큰 시기이므로 장기적 계획 하에 주거마련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애로가 있다. 불안정한 청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주거상향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계층상승 사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 해결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장진희, 김연재, 2016).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한 주거빈곤 외에도 청년 1인 가구는 성별화된 특징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비혼 등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여성의 급변하는 지위를 드러낸다.<sup>1)</sup>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증가이다. 실제로 3대 생활폭력 중 주거침입만 유난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새 2배 증가를 나타냈다(서울신문, 2020.2.24.).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남성 대비 범죄 피해 확률이 2.3배 높고 주거침입은 무려 11.2배 높다(강지현, 2017).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지난 10년간 원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OECD 기준(15-64세)으로 환산해도(59%) OECD 평균인 64%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 중 38.5%, 한국 남성 월평균임금의 65.2%, 15-6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20.5% 등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

계」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3.1%(2018년)로 매우 높은 편이며, '국가성평등 지수'에서도 안전 분야는 의사결정, 가족 분야에 이어 여전히 한국 여성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난 5년간 그 지수가 오히려 하락한 유일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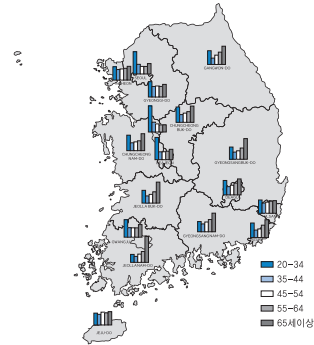
그 결과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조규원, 김태형, 2019; 박미선, 조운지, 2020).<sup>2)</sup> 실제로 여성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평균 21.7%로 남성의 15.3%보다 훨씬 높다(그림 VIII-11 참조). 이에 비해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주거 선택 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입지와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규원, 김태형, 2019).

### 청년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

[그림 VIII-9]에서 제시되는 연령별 1인 가구의 분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분포가 대비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고령 1인 가구는 광역시 이외의 군 지역에, 청년 1인 가구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수도권 지역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2) KB경영연구소의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수도권 광역시 거주 25-59세 1인 가구 2,000명 대상)에 의하면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해결'이 가장 큰 고충이었고 여성은 '경제문제와 위험'이 가장 큰 고충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III-9] 시도별 1인 가구의 연령분포, 201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 상위 20개 지역은 6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전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서울 편향성이 높게 나타난다(표 VIII-14).

서울의 20-34세 여성 1인 가구는 25만 9,197 가구이며, 서울에 전국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35.4%가 집중되어 있다.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체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대전, 천안, 세종 등 충청권과 수원, 부천 등 경기 일부 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표 VIII-15). 서울시 관악구는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에 있어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청년 1인 가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20-34세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은 73만 1,516명, 남성은 94만 948명으로 청년 남성이 20만 9,432명 더 많다. 해당 지자체에서 전체 1인 가구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표 VIII-14〉 청년 1인 가구 상위 20개 지역, 2019

여성			남성		
광역시	시군구	가구 수	광역시	시군구	가구 수
서울	관악구	32,715	서울	관악구	35,178
서울	강서구	16,221	경기	화성시	19,905
서울	마포구	15,752	대전	유성구	15,018
서울	강남구	14,629	서울	동작구	14,847
서울	동작구	14,575	대전	서구	13,802
서울	광진구	14,330	서울	동대문구	13,370
서울	송파구	13,387	서울	강서구	13,135
서울	성북구	13,309	경기	수원 영통구	13,080
대전	서구	12,621	충남	천안 서북구	12,941
서울	영등포구	12,588	서울	광진구	12,717
서울	동대문구	12,411	서울	마포구	12,426
서울	서대문구	11,849	서울	영등포구	12,081
경기	화성시	9,395	서울	성북구	11,851
부산	부산진구	9,392	경북	구미시	11,519
대전	유성구	9,056	경기	평택시	11,303
충남	천안 서북구	8,950	서울	송파구	11,298
서울	서초구	8,708	서울	강남구	10,826
경기	수원 영통구	8,126	서울	서대문구	9,641
서울	구로구	8,094	경기	부천시	9,526
서울	성동구	8,007	대구	북구	9,486

주: 1) 청년은 20~3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여성은 서울 8개 구와 수원 영통구, 대전 유성구, 천안 서북구 등 총 11개 시군구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반면 남성은 서울 10개 구 포함 24개 시군구에서 높은 집중률을 보여 여성에 비해 더 다양한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구미, 경산 등 제조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표 VIII-15〉 청년 1인 가구 비중 40% 이상 지역, 2019

여성			남성		
광역시	시군구	비율	광역시	시군구	비율
서울	관악구	57.1	경기	수원 영통구	56.5
서울	마포구	46.9	서울	관악구	56.2
서울	광진구	46.7	대전	유성구	53.2
서울	동작구	46.5	서울	동작구	51.6
서울	서대문구	45.1	서울	마포구	48.4
경기	수원 영통구	44.8	서울	서대문구	47.8
서울	영등포구	43.5	경기	용인 수지구	47.1
서울	동대문구	42.8	서울	동대문구	45.8
대전	유성구	42.4	서울	광진구	45.4
서울	성북구	42.0	서울	성북구	45.4
충남	천안 서북구	40.6	세종	세종시	45.1
			충북	청주 청원구	44.6
			대전	서구	44.0
			충남	천안 서북구	44.0
			경북	경산시	43.4
			광주	동구	42.8
			부산	금정구	41.6
			서울	성동구	41.3
			충북	청주 서원구	41.3
			서울	영등포구	41.2
			충북	청주 흥덕구	41.2
			서울	종로구	40.9
			대구	중구	40.8
			경북	구미시	40.6

주: 1) 해당 시군구 및 성별 전체 1인 가구 중 20~34세 1인 가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이러한 분포 차별성은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직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여성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고(33.1%), 사무업무(19.1%), 단순노무(15.6%)에 집중 종사하는 반면 남성은 서비스업



(19.5%), 기능업무(17%), 단순노무(16.9%) 등에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다(박미선, 2020). 따라서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서비스 및 사무업무로 특화된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서비스업 중심지와 제조업(기능 및 단순노무) 중심으로 이분화되어 집중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청년 1인 가구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주거 유형과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 군 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에 단독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2018년 기준 20대는 66.5%, 30대는 49.8%).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표 VIII-16).

1인 가구의 주거면적 변화에 있어서도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2008년도 주거면적이 가장 작은 20대와 가장 큰 집단 간의 차이는 21.3㎡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 후 그 차이는 30.8㎡로 크게 벌어졌는데 그 주된 이유가 중고령층의 면적 증가가 아니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대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면적 감소를 보였다(표 VIII-17).

〈표 VIII-16〉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8

(%)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월세	사글세	일세	무상
전체							
20대	2.9	16.0	66.5	6.5	3.5	0.0	4.5
30대	10.7	24.0	49.8	7.6	0.5	0.0	7.4
40대	22.0	14.3	46.4	10.4	0.7	0.0	6.2
50대	28.9	13.0	37.8	12.8	0.9	0.0	6.5
60대	47.3	12.0	25.4	7.4	1.8	0.0	6.0
70대	63.4	10.4	15.2	3.7	1.0	0.0	6.3
80대 이상	67.4	7.3	10.2	2.2	1.2	0.0	11.7
남성							
20대	2.3	17.3	62.8	7.1	4.2	0.0	6.2
30대	11.1	23.0	46.7	9.9	0.4	0.0	9.0
40대	21.7	12.9	44.0	13.2	0.6	0.0	7.6
50대	21.6	9.6	40.6	18.4	0.8	0.0	9.0
60대	30.4	10.8	33.5	15.5	2.9	0.0	7.0
70대	46.8	10.9	24.6	9.8	1.9	0.0	6.0
80대 이상	68.9	8.4	12.9	2.8	0.6	0.0	6.3
여성							
20대	3.8	14.0	72.4	5.5	2.5	0.0	1.9
30대	10.1	26.0	56.3	2.9	0.6	0.0	4.1
40대	22.6	17.1	51.2	4.8	0.8	0.0	3.4
50대	38.1	17.3	34.3	5.9	1.0	0.0	3.4
60대	56.6	12.7	21.0	3.0	1.2	0.0	5.5
70대	67.5	10.3	12.9	2.2	0.7	0.0	6.4
80대 이상	67.2	7.1	9.8	2.0	1.3	0.0	12.6

주: 1)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는 연세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표 VIII-17〉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2008, 2018

	면적(㎡)		
	2008년(A)	2018년(B)	차이(B-A)
20대	34.8	28.6	-6.2
30대	39.4	36.3	-3.1
40대	41.0	40.2	-0.8
50대	46.4	44.3	-2.1
60대	56.1	52.6	-3.5
70대 이상	53.7	59.4	5.7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2030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 VIII-18>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선호되는 주택유형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전 연령 및 성별 집단을 통틀어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낮다(20대 7.3%, 30대 21.4%). 이들은 높은 단독주택 거주율(20대 남성 63.8%)을 보이지만 <표 VIII-16>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율은 2.3%, 11.1%에 그쳐 대다수가 하숙, 다인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II-18>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2018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비 거주용	오피 스텔	주택 이외
(%)							
남성							
20대	63.8	7.3	0.4	8.8	1.0	11.8	6.9
30대	44.2	21.4	0.8	11.9	1.8	10.7	9.2
40대	42.1	26.1	1.6	7.8	2.9	5.9	13.6
50대	48.6	20.2	1.3	6.6	3.7	3.0	16.5
60대	53.3	23.3	1.7	6.7	4.2	1.2	9.7
70대	49.6	31.3	2.2	6.7	3.4	0.1	6.7
80대 이상	59.5	26.3	1.9	7.5	2.2	1.0	1.5
여성							
20대	58.4	10.8	0.6	7.3	0.2	18.7	4.0
30대	45.0	23.0	0.8	9.5	1.1	19.3	1.4
40대	37.8	37.5	1.5	8.9	2.4	7.8	4.0
50대	41.9	34.8	2.5	10.7	2.5	2.5	5.2
60대	42.6	39.1	2.2	9.0	4.1	0.6	2.4
70대	56.7	30.3	2.6	7.3	1.7	0.3	1.0
80대 이상	67.7	23.1	1.6	5.7	0.9	0.2	0.9

주: 1)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는 연세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반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18.7%, 19.3%) 비거주용 건물이나 주택이외 거처(주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낮아 남성에 비해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는 고시원, 쪽방 등 최저 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장 취약한 1인 가구 주거유형을 상징한다. 20대 남성 1인 가구의 6.9%(여성은 4.0%), 30대의 9.2%(여성은 1.4%)가 이러한 기준미달의 주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청년 남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음을 드러낸다.

###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청년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남성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표 VIII-19>의 1인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근로 및 사업 소득은 낮으나 사적이전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낮을지라도 부모의 지원이나 기타 소득을 확보한 여성이 주로 1인 가구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정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독립기회가 아예



차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독립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I-19〉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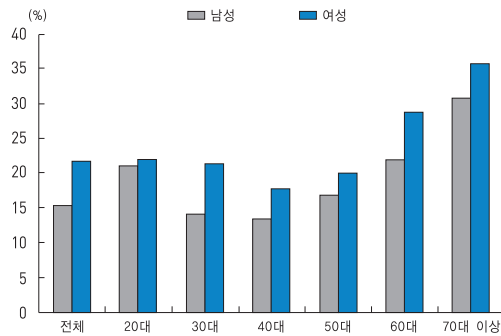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 보조금	사적이전 소득 (만 원)
<b>남성</b>					
20대	146.9	0.6	0.0	0.3	74.2
30대	253.6	0.3	0.1	0.7	74.1
40대	248.0	0.5	0.5	3.8	49.4
50대	182.9	2.4	0.8	9.5	50.5
60대	103.1	4.8	12.3	17.2	37.0
70대	29.1	9.8	23.7	24.8	36.9
80대 이상	8.7	13.0	19.7	22.6	35.9
<b>여성</b>					
20대	140.1	0.0	0.1	0.6	81.9
30대	221.0	0.9	0.3	1.8	76.3
40대	206.3	0.5	0.2	4.5	50.6
50대	136.8	5.0	3.3	6.9	50.1
60대	63.1	10.2	17.4	12.6	42.3
70대	12.9	8.8	12.6	20.6	35.2
80대 이상	4.7	5.7	8.1	21.7	33.5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실제로 [그림 VIII-10]에서처럼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을 보인다. 부모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대의 경우 남녀 비슷한 주거비부담 수준(각 21%, 22%)을 보이나 소득연령대에 본격 진입하는 30대에서는 여성이 21.3%, 남성이 14.1%로 성별 차이가 증가한다. 이는 남성이 소득에 비해 저렴한 주택에

살고 여성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안전 등의 이유로 주택의 수준을 포기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조규원, 김태형, 2019).

[그림 VIII-10]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부담 수준(RIR), 2018



주: 1)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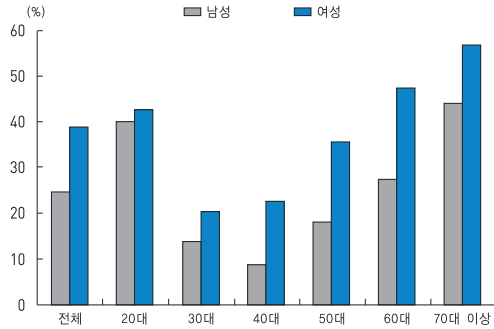
2) 보증금은 2018년 월세 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함.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그림 VIII-11]에서는 1인 가구 중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비 과 부담 가구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전 연령대에 걸쳐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20대 1인 가구의 과부담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다. 즉, 여성 1인 가구와 20대 1인 가구가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중 20대 1인 가구는 주거비 마련에 있어서 부모의 존율이 남자 32.2%, 여자 33.3%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제임을 드러낸다(표 VIII-20).



[그림 VIII-11]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018



주: 1)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보증금은 2018년 월세 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함.  
 3)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뜻함.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표 VIII-20〉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 마련 방법, 2018

	자기 자금	금융 기관	금융 기관 외	부모	자기 자금 + 금융 기관	자기 자금 + 부모	부모 + 금융 기관	기타
남성								
20대	59.1	0.1	0.5	32.2	4.3	2.9	0.2	0.7
30대	85.2	0.8	0.0	3.8	6.7	3.2	0.2	0.2
40대	95.0	0.6	0.4	0.8	2.8	0.4	0.0	0.0
50대	95.2	0.5	0.8	0.7	2.4	0.2	0.0	0.2
60대	93.9	0.9	0.5	1.0	2.3	0.2	0.0	1.2
70대	92.5	0.4	1.0	2.8	1.9	1.0	0.2	0.2
80대 이상	87.2	1.3	1.8	4.3	2.4	1.4	0.0	1.8
여성								
20대	57.2	1.0	0.8	33.3	2.3	4.4	0.5	0.6
30대	84.1	0.0	0.1	4.9	6.4	3.7	0.0	0.8
40대	93.6	0.3	0.0	0.7	4.3	1.1	0.0	0.0
50대	93.3	0.2	0.4	0.4	3.2	1.0	0.0	1.5
60대	90.4	1.0	1.4	2.4	2.3	1.4	0.0	1.1
70대	87.7	0.7	0.4	4.1	2.6	2.3	0.0	2.2
80대 이상	87.9	0.4	0.7	6.1	1.5	3.3	0.0	0.2

주: 1) 기타는 자기자금+부모+금융기관, 금융기관 외+금융기관, 자기자금+금융기관 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 맺음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 유형은 3, 4인 다인가구에서 1, 2인 가구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 현상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편화된 현상으로, 청년기의 연장,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고령화, 문화 수준 및 삶의 질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 및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 및 주거불안정의 문제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보다는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증장년층이나 노년층과 달리 이혼, 사별, 가족해체가 아닌 자발적인 주거독립을 주로 이룬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미혼 상태, 즉 미래에 결혼할 상태의 임시적인 가구로 간주되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상시화되고 높아진 여성의 사회진출에 비해 경력단절과 육아의 부담은 눈에 띄게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결국 비혼이라는 새로운 생애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생애 경로상 유동성이 가장 높은 이들 1인 가구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주거, 고용, 젠더정책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627. 국토연구원.
- 박미선, 조윤지. 2020.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정책 브리프』 749. 국토연구원.
- 이수옥.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560. 국토연구원.
- 장진희, 김연재. 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규원, 김태형. 2019.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전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5-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여성 1인 가구 증가의 그림자… ‘주거침입’ 5년새 2배”. 〈서울신문〉 2020.2.24.